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7호 【루게 제24845호】 주제 104 (2015)년 3월 8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 여성들은 당의 호소따라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세계여성들이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05년이 되었다.

3.8국제부녀절은 사회적평등과 자주적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여성들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시위하는 전투적명절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한폭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나가며 조국청사에 깊이 빛날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는 온 나라의 전체 여성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여성들이 있지만 조선여성처럼 해마다 수령의 뜨거운 촉촉이,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고무속에 국제부녀절을 의의있게 맞이하는 여성들은 없다.

지금 우리의 모든 여성들은 주체적조선여성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며 여성문제해결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선군시대 여성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내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폭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여성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의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 세기가 넘는 장구한 여성운동사는 여성들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 존엄과 행복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21세기가 흘러가고있는 오늘에도 세계의 여러곳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정치고문과 사회적불평등속에서 고통을 겪고있으며 여성해방문제는 의연히 심각한 국제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역사와 현실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되고 최상의 높이에 보장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여성들의 참된 삶과 행복이 꽃피날 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여성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가장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복받은 여성들이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문제는 배두산철세위인들을 높이 모으며 빛나게 해결되였다.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전통이며 주체의 여성운동사는 여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빛나는 투쟁력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여성존중, 여성중시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우리 여성들은 오랜 세월 강요당하던 온갖 천대와 멸시, 봉건적질곡에 종지부를 찍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선여성운동이 나아갈 길을 밝히 밝혀주시고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도 있었기에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폭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한정형 여성들의 사회적해방과 여성문제의 중국적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며 조선여성운동사에 불멸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오늘 주체의 조선여성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모든 여성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다운 여성혁명가들로 키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지의이다. 우리 여성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어머니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날과 달들이 크나큰 격정속에 흘러가고있다.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참석하시며 여성들을 축하해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수많은 여성들을 선군시대 공로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성대

히 진행된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는 가정과 사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축하의 대회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부비행사들과 여성비행사들을 자신의 곁에 세워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감동깊은 화폭은 오늘도 만사환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속에 언덕과 새기를 이어가며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여성들의 사상정신적품고는 대단히 훌륭하다.

우리 여성들은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성의 인간들이다.

시련의 나날에 행방불명 나날에나 변함없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었던것은 우리 여성들의 고결한 품도이다. 원수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항일의 너투사의 가슴속에 간직된 단결,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의 그대 영웅적최후를 마친 녀성간호원과 전후 어려운 시기에 당과 수령을 간결히 옹호하여나선 태성할머니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은것도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충정이었다.

조선여성들의 충실성의 전통,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대진군길에서 뜻깊이 이어지고있다.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의 한화속동무와 이천땅의 백연화동무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혁명적실천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다. 불의의 정황에서 혁명의 수비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할 리정충동무와 같이 수령옹위를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의리로 여기고 살며 투쟁하는 여성들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있다. 자기 명도자와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복을 함께 해나가려는 순결한 마음, 우리 당이 바란다면 물우에도 꽃을 피우려는 비상한 각오, 당중앙을 옹위하는 길에 청춘도 생명을 다 끼여 바치려는 불타는 충정을 심장깊이 간직한 녀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

이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영웅적삶을 빛내여가는 견결한 혁명가들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는 남자와 나란히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피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여성들의 불멸의 위훈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불비속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복귀건설은 녀름마시라고 절절히 말씀올린 락원의 녀당원과 고산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거름집을 지고 나르던 자강도여성들을 비롯하여 전진하는 조국의 승리에 맥동을 더해준 여성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한폭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나가고있다. 가사보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총잡은 남편들과 한천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수수들이 군인가족들의 애국헌신의 기쁨은 사회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그대 영웅적최후를 마친 녀성간호원과 전후 어려운 시기에 당과 수령을 간결히 옹호하여나선 태성할머니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은것도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충정이었다.

조선여성들의 충실성의 전통,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대진군길에서 뜻깊이 이어지고있다.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의 한화속동무와 이천땅의 백연화동무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혁명적실천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다. 불의의 정황에서 혁명의 수비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할 리정충동무와 같이 수령옹위를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의리로 여기고 살며 투쟁하는 여성들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있다. 자기 명도자와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복을 함께 해나가려는 순결한 마음, 우리 당이 바란다면 물우에도 꽃을 피우려는 비상한 각오, 당중앙을 옹위하는 길에 청춘도 생명을 다 끼여 바치려는 불타는 충정을 심장깊이 간직한 녀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

이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영웅적삶을 빛내여가는 견결한 혁명가들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는 남자와 나란히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피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여성들의 불멸의 위훈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불비속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복귀건설은 녀름마시라고 절절히 말씀올린 락원의 녀당원과 고산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거름집을 지고 나르던 자강도여성들을 비롯하여 전진하는 조국의 승리에 맥동을 더해준 여성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

조선여성들의 충실성의 전통,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대진군길에서 뜻깊이 이어지고있다.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의 한화속동무와 이천땅의 백연화동무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혁명적실천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다. 불의의 정황에서 혁명의 수비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할 리정충동무와 같이 수령옹위를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의리로 여기고 살며 투쟁하는 여성들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있다. 자기 명도자와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복을 함께 해나가려는 순결한 마음, 우리 당이 바란다면 물우에도 꽃을 피우려는 비상한 각오, 당중앙을 옹위하는 길에 청춘도 생명을 다 끼여 바치려는 불타는 충정을 심장깊이 간직한 녀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

과 무한한 헌신은 우리가 력사의 류례없는 시련도 웃으며 헤쳐올수 있게 한 원천이였고 우리 사회에 언제나 고상하고 혁명적인 생활의 향기가 차넘치게 한 자랑분이였다.

오늘도 우리 여성들은 시대의 꽃으로 떠날떠러우며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고 영예근일의 한생의 걸출무가 되며 부도없는 아이들을 친치처럼 맡아키우는 우리 여성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품고는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심한 화상을 입은 노동자 처녀의 얼굴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조선적십자총합병원 립원단동무의 미풍은 사회주의대가정을 꾸꾸어가는 우리 여성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결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조국방 그 어디에나 이런 훌륭한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언제나 자본주의를 압도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다.

지금 우리 여성들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와 회, 당중앙위원회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할 영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여성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난 사명과 임무를 심장깊이 새겨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향하여 오늘을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높이 펼쳐나가야 한다. 주체적조선여성운동을 탁월한 수령이 시며 자레로운 스승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현행쟁 부어주신 사랑과 정을 피워처럼 간직하고 수령영생일설현에 더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치야 한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으며, 보람으로 여기는것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다. 여성들의 열정년천 모습

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녀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녀성들은 레의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우리 식, 우리의 멋이 내게 옷차림과 몸단장을 하여야 한다. 민족음식을 장려하고 식생활문화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여성들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어디에서나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의 노예가 율려되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여성들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와 회, 당중앙위원회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할 영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여성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난 사명과 임무를 심장깊이 새겨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향하여 오늘을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높이 펼쳐나가야 한다. 주체적조선여성운동을 탁월한 수령이 시며 자레로운 스승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현행쟁 부어주신 사랑과 정을 피워처럼 간직하고 수령영생일설현에 더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치야 한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으며, 보람으로 여기는것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다. 여성들의 열정년천 모습

모든 녀성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현행쟁 부어주신 사랑과 정을 피워처럼 간직하고 수령영생일설현에 더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치야 한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으며, 보람으로 여기는것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다. 여성들의 열정년천 모습

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녀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녀성들은 레의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우리 식, 우리의 멋이 내게 옷차림과 몸단장을 하여야 한다. 민족음식을 장려하고 식생활문화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여성들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어디에서나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의 노예가 율려되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여성들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와 회, 당중앙위원회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할 영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여성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난 사명과 임무를 심장깊이 새겨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향하여 오늘을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높이 펼쳐나가야 한다. 주체적조선여성운동을 탁월한 수령이 시며 자레로운 스승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현행쟁 부어주신 사랑과 정을 피워처럼 간직하고 수령영생일설현에 더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치야 한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으며, 보람으로 여기는것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다. 여성들의 열정년천 모습

모든 여성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난 사명과 임무를 심장깊이 새겨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향하여 오늘을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높이 펼쳐나가야 한다. 주체적조선여성운동을 탁월한 수령이 시며 자레로운 스승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현행쟁 부어주신 사랑과 정을 피워처럼 간직하고 수령영생일설현에 더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치야 한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으며, 보람으로 여기는것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다. 여성들의 열정년천 모습

# 과학기술로 부강조국건설을 추동해가는 미더운 여성들

##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많은 여성교수, 녀성박사 배출

3.8국제부녀절을 맞이한 우리 여성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당의 품속에 갇혀있는 삶과 행복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차넘치고있다.

참다운 존엄과 행복을 안겨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미더운 여성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또 하나의 커다란 힘이며 자랑이다.

그 때로의 앞 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기상을 과학과 기술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는 녀성과학자, 녀성교육자, 녀성일군들이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분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들속에는 평양야망공장의 포장기를 연구개발한 평양기체대학 연구사 조수경동무도 있다. 주체 101(2012)년 7월 이 공장을 찾오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실리있는 포장기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고심하여 탐구의 나날을 보낸 조수경동무를 내세워주고 그의 연구성과를 적극 장려하여 한다고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김일성종합정보화연구소 경제교육동무와 국가과학원 경제공정과학부원 연구사 김명숙 동무는 태양의 꽃 보검화살의 아름다움을 오래 보존할수 있는 선도보존제 《청화》를 연구개발하고 국제원료를 가지고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한 녀성박사들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연구사 조선옥동무는 유

전병에방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고 김제원동무는 산림자연에 피해를 주는 주요병해충들을 구제할수 있는 산림해충구제약을 새로 개발하였으며 평양인공대공대학 교원 오순희 동무는 인체혈액의 정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공장에 도입하여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았고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녀성교육자들도 나라의 교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고있다.

나라의 수확발전에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로 기여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박순애, 대개도간석지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여준데 적극 이바지한 사리원지질대학 교원 김영만 동무를 비롯하여 수많은 녀성교수, 녀성박사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값있는 삶을 빛내가고있다.

녀성박사들중에는 자강도장강군 읍청동농장 관리위원 장인 박옥희, 평안북도산원원

장 김희숙동무와 같이 자기 맡은 조소에서 애국적헌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녀성일군들이 있다.

우리의 미더운 녀성과학자, 녀성교육자, 녀성일군들이 배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다음과 같이 협력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제 근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 합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양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겨울철나무생산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겨울철에 년간 통나무생산량의 70-75%를 생산할 일념으로 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지난해 현행생산량을 다그치면서 순환구역, 체벌구역에 따른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신속하게 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

겨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정초부터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도안림산사업소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제 근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 합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양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겨울철나무생산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겨울철에 년간 통나무생산량의 70-75%를 생산할 일념으로 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지난해 현행생산량을 다그치면서 순환구역, 체벌구역에 따른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신속하게 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

추어놓았다. 이밖 책임일군들은 사업소의 실정에 맞게 모든 력량을 산지통나무생산에 집중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작업소들에 내려간 사업소들의 일군들은 산안에 올라 노동자들에게 겨울철나무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 주면서 나무베기, 사이나르기 등 공정별작업의 알장에서 대중을 이끌어 전례없는 생산적 앙양이 이뤄지게 하였다.

조국해방 일흔돌과 당창건 일흔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통나무생산을 늘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 공은 결의를 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사업소야애 작업소들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지역개성의 혁명정신으로 이약하게 투쟁하며 체벌장 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를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산수작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립지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찾아들이면서 산지통나무생산을 늘리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작업소에서는 기계들을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소반수운과 풍소이를 적극 배합하여 매일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문안작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왔다. 이들은 서로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겨울철조기에 맞게 수천m의 통소이길을 리용하여 많은 통나무를 연유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산지통나무생산을 쌓아놓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공무부문의 노동자들도 내부에비비 최대한 탐구지원하면서 수시로 제기되는 부속품 고장과 설비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사업소가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통나무를 얻어놓는 도안림산사업소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신심과 파란에 넘쳐 마나르기를 발휘하면서 산지통나무생산을 확대해나가고있다.

본문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소반수운과 풍소이를 적극 배합하여 매일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문안작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왔다. 이들은 서로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겨울철조기에 맞게 수천m의 통소이길을 리용하여 많은 통나무를 연유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산지통나무생산을 쌓아놓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공무부문의 노동자들도 내부에비비 최대한 탐구지원하면서 수시로 제기되는 부속품 고장과 설비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사업소가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통나무를 얻어놓는 도안림산사업소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신심과 파란에 넘쳐 마나르기를 발휘하면서 산지통나무생산을 확대해나가고있다.

본문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소반수운과 풍소이를 적극 배합하여 매일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문안작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왔다. 이들은 서로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겨울철조기에 맞게 수천m의 통소이길을 리용하여 많은 통나무를 연유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산지통나무생산을 쌓아놓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공무부문의 노동자들도 내부에비비 최대한 탐구지원하면서 수시로 제기되는 부속품 고장과 설비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사업소가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통나무를 얻어놓는 도안림산사업소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신심과 파란에 넘쳐 마나르기를 발휘하면서 산지통나무생산을 확대해나가고있다.

# 고마운 사회주의제노를 위해 애망이 넘쳐 하자

## 봄보리심기를 끝냈다

### 황해남도 농촌들에서

아래에 내려가 과학적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기술지도를 따라세웠다. 봄보리심기에서는 지난해 보리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웅진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앞장서었다. 그들은 지난해 시가 농사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지대적특성에 맞게 다수확종자확보와 품종매치를 바로하고 결이를 보장하면서 전면같이 진행하였다.

강령군 일군들과 농업근로

자들도 날씨가 풀리는데 맞게 적지선정을 바로하고 모든 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였다.

봄보리를 심고있는 도안의 여러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바로 세우고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일손을 다그쳤다. 이와 함께 앞선 농경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보리심기를 앞설있게 하였다.

지난해 보리농사를 잘한 단위들의 경험은 적기와 절

보장을 잘하는 것이었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씨뿌림면적에 따르는 종자확보와 종자처리, 포전준비 등 앞세워 할 일농공정을 적극 추진하고 기쁨이 긴장한 조건에 맞게 부림소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포전같이 함으로써 봄보리심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게 하였다.

당의 두방농사방침을 열망에서 관철할 불같은 열의에 봄보리심기를 성과적으로 끝낸 도안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을일보리에 대한 배관리에도 당당한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조국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할 한마음으로 나무모생산에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백석군산림경영소 모재양묘장에서- 본사기자 전용

# 절세의 위인들과 조선의 3.8절

3.8국제부녀절! 그것은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과 온갖 예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한 전세계여성들의 세계적인 열망의 산물이라고 인류와 역사가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겠다. 온 세계의 여성들이 105번째의 국제부녀절을 나라와 민족의 정치체도와 국제적인 사회환경에 따라 기념하고있다.

3.8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조선여성들의 간결과 기쁨, 격정과 흥분은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여성들도 느낄 수 없는 열렬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성운동의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부녀절을 크게 기념하여야 합니다.》**

이 나라 녀인들에게 있어서 3.8절은 위대한 은인,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을 떠나 말할 수 없는 조선녀성의 명절이다. 백두산위인들께서 찾아주시신 조선의 3.8절은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생의 환희를 주는 명절일뿐아니라 이 나라 여성들의 운명사를 돌이켜보게 하는 력사의 날이다.

얼마나 플라보게 달랠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녀성들이 자기들의 동맹을 맺고 나라의 수령에 직접 감사의 편지를 올리게 되리라고 그들이 언제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전세계여성들의 국제적명절인 3.8절에는 국경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그 조국의 위대한 은인을 떠나 조선녀성들은 결코 3.8절을 논하지 않는다. 해방된 조국에서 맞이한 새 조선의 첫 3.8국제부녀절을 우리 진정 잊을수 없다.

3.8국제부녀절이 제정된지 36년만에 조선녀성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의 명절을 당당히 기념할수 있게 되었다. 당시 당보에는 **《3.8을 기념하면서 조선녀성에게 교함》**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실렸다. **《8.15의 조선민족해방은 조선녀성의 해방을 가져왔다. 해방된 조선녀성이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는 첫날이다.》** 3.8절은 전세계녀성이 녀성의 사회해방과 인권의 평등자유를 위한 투쟁의 투쟁이며 녀성들의 힘을 한데 뭉치어 사회국가건설에 참가하기를 명세하고 실천하는 날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첫 3.8절을 맞으며 우리는 고마움과 맹세의 분출이 이 땅에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한 이 나라 녀성들이 어머니수령님을 우러러 터치는 고마움과 맹세의 분출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때까지 누구도 몰랐다. 새 조선의 첫 3.8국제부녀절을 뜻깊게 기념한 때로부터 몇달후 조선녀성들의 운명에서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분기점으로 되는 남평등권법령이 발표될줄을.》**

어찌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 제기되고 있지만 조선녀성들은 더욱 높아지고 더욱 아름다워진 자기들의 존엄과 가치를 가슴 벅차게 느끼고있다. 단 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 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던 녀투사들, 이국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아래서 김일성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달랐다

고 웅변 녀성체육인,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며 우리는 김정은비행대라고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녀성비행사들, 그들의 목소리는 조선의 3.8절이 왜 세기가 이어가면서도 그대로 행복스럽고 긍지높은가를 세계앞에 미치는 이 나라 녀성들의 심장의 노래이다.

## 8.15가 있어 3.8절이 있다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주제 34(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우리 민족사에 조국해방의 날로 기록되어있다. 아마도 8.15의 참다운 의미를 누구보다 배에 사무치게 느낀 사람들은 이 나라의 녀성들이었다.

기나긴 중세의 암흑속에서 무지와 몽매, 천대와 멸시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불쌍한 조선녀성들이었다. 너자로 태어난 **《희》**를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했고 온갖 본격적 악습과 폐풍에 얽매어 눈물과 한숨속에 시들어갔다.

대해서 다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느꼈다. 그들을 지지하고 동정하는 과정에 나의 머리속에서는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선 한 녀인과 그의 자식들의 형상이 무르익어갔다. **《우리 수령님의 고전적명작 《위화》는 눈물과 수난의 피바다에서 통곡하던 조선녀성들을 혁명의 피바다에로 불러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과 함께 울남이어나가 다시 태어났듯이 참다운 조선녀성들은 숙명의 울타리를 단호히 박차고 자기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선전에 과감히 떨쳐나섰으며 두 눈을 원수에 가득 채웠고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는 백절불굴의 순투사들의 대오가 역세게 자라났다.》**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어머니수령님은 이 나라 녀성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존엄과 행복을 안겨 주신 절세의 은인이시였다.

8.15가 있어 우리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의 새 세계, 평명의 세계가 동태되고 조국의 행복은 3.8절도 잊을수 없음을 이 나라 녀성들이여, 영원히 잊지 말자.

어머니수령님의 녀성운동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의 폭풍속에서 우리 녀성들의 삶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였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이라는 기념비적명작과 더불어 이 나라 녀성들의 이름을 시대의 기록에 아로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수많은 로동당의 참된 딸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올렸다.

은 나라 전체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

누구의 가슴엔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 있지 않았는가. 구호나무를 구원하기 위해 불속에 뛰어들어 화상을 입은 한 녀장사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여 내세워주신 사연,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도 우리 녀성들의 몸단장을 위해 비단옷감과 화장품생산목에도 깊이 마음쓰신 이야기, 지휘관들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녀병사의 바나나처럼 든 열매를 넘겨주시어 약국림을 보내주신 사신들이 선군조선의 녀성들이 무슨 힘으로 시련의 언덕들을 웃으며 헤쳐왔을 수 있었는가를 음원으로 말하여주고 있다.

3.8국제부녀절이 제정된 1910년 우리 조국은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었다. 당국의 조선녀성들에게는 3.8절이 없었다.

나라잃은 지옥과 불행이 녀성들에게만 들끓어있는듯 수많은 녀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히 유린당해도 누구도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지 못하였다.

3월 8일이란 이 행성의 녀인들이 국제부녀절을 즐겼건만 조선의 녀성들중에는 그러한 명절이 있다는것조차 아는 녀성들이 얼마 없었다. 지어 자기의 이름도 생일도 모르는 녀성들이 수다하였다. 3.8절은 조선의 불쌍한 녀인들과는 아무런 연인도 없는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당장건립을 실현하신 다음 지체없이 진행된사업이 민주녀성명령의 결성이었다. 새 조국건설로 낮에 밤을 이어 사업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집무실속판에 해방된 녀성로동자들의 처지를 각이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기록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새 세대 녀성들이여, 과연 알고있는가.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녀성과 학자를 만나시절을 때였다. 그의 정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분야를 탐구해나가는 녀성과학자로서 한민 명성을 떨쳐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처녀시절에는 꽃을 피우다가도 결혼한 후엔 희망도 포부도 다 버리고 주저않는 녀성들이 적지 않은데 절대로 그대서는 안된다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엔 그대에게는 크나큰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그후 녀성과학자 50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에 드디어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소식을 담담히 위대한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였을 때에는 반갑다고,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든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은 나라 전체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

누구의 가슴엔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 있지 않았는가. 구호나무를 구원하기 위해 불속에 뛰어들어 화상을 입은 한 녀장사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여 내세워주신 사연,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도 우리 녀성들의 몸단장을 위해 비단옷감과 화장품생산목에도 깊이 마음쓰신 이야기, 지휘관들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녀병사의 바나나처럼 든 열매를 넘겨주시어 약국림을 보내주신 사신들이 선군조선의 녀성들이 무슨 힘으로 시련의 언덕들을 웃으며 헤쳐왔을 수 있었는가를 음원으로 말하여주고 있다.

3.8국제부녀절이 제정된 1910년 우리 조국은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었다. 당국의 조선녀성들에게는 3.8절이 없었다.

나라잃은 지옥과 불행이 녀성들에게만 들끓어있는듯 수많은 녀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히 유린당해도 누구도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당장건립을 실현하신 다음 지체없이 진행된사업이 민주녀성명령의 결성이었다. 새 조국건설로 낮에 밤을 이어 사업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집무실속판에 해방된 녀성로동자들의 처지를 각이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기록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새 세대 녀성들이여, 과연 알고있는가.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녀성과 학자를 만나시절을 때였다. 그의 정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분야를 탐구해나가는 녀성과학자로서 한민 명성을 떨쳐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처녀시절에는 꽃을 피우다가도 결혼한 후엔 희망도 포부도 다 버리고 주저않는 녀성들이 적지 않은데 절대로 그대서는 안된다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엔 그대에게는 크나큰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그후 녀성과학자 50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에 드디어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소식을 담담히 위대한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였을 때에는 반갑다고,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든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은 나라 전체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

누구의 가슴엔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 있지 않았는가. 구호나무를 구원하기 위해 불속에 뛰어들어 화상을 입은 한 녀장사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여 내세워주신 사연,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도 우리 녀성들의 몸단장을 위해 비단옷감과 화장품생산목에도 깊이 마음쓰신 이야기, 지휘관들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녀병사의 바나나처럼 든 열매를 넘겨주시어 약국림을 보내주신 사신들이 선군조선의 녀성들이 무슨 힘으로 시련의 언덕들을 웃으며 헤쳐왔을 수 있었는가를 음원으로 말하여주고 있다.

## 깊은 칭호 - 녀성혁명가 - 민음의 최절정우에서 -

여기에 외국의 한 저명한 인사가 쓴 글이 있다. **《조선의 영웅적수도 평양의 중심부에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미소를 향하여 줄달음쳐나가는 날개달린 딸, 천리마의 동상이 솟아있다.》**

이 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하고있으며 남성들과 함께 조선녀성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외국의 한 저명한 인사가 쓴 글이 있다. **《조선의 영웅적수도 평양의 중심부에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미소를 향하여 줄달음쳐나가는 날개달린 딸, 천리마의 동상이 솟아있다.》**

이 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하고있으며 남성들과 함께 조선녀성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외국의 한 저명한 인사가 쓴 글이 있다. **《조선의 영웅적수도 평양의 중심부에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미소를 향하여 줄달음쳐나가는 날개달린 딸, 천리마의 동상이 솟아있다.》**

이 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하고있으며 남성들과 함께 조선녀성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외국의 한 저명한 인사가 쓴 글이 있다. **《조선의 영웅적수도 평양의 중심부에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미소를 향하여 줄달음쳐나가는 날개달린 딸, 천리마의 동상이 솟아있다.》**

이 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하고있으며 남성들과 함께 조선녀성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외국의 한 저명한 인사가 쓴 글이 있다. **《조선의 영웅적수도 평양의 중심부에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미소를 향하여 줄달음쳐나가는 날개달린 딸, 천리마의 동상이 솟아있다.》**

이 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하고있으며 남성들과 함께 조선녀성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외국의 한 저명한 인사가 쓴 글이 있다. **《조선의 영웅적수도 평양의 중심부에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미소를 향하여 줄달음쳐나가는 날개달린 딸, 천리마의 동상이 솟아있다.》**

이 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하고있으며 남성들과 함께 조선녀성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이제는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계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남평등권법령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녀성들의 운명에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녀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 간대 저어 잊을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의 년대기마다에 빛나는 자욱을 새겨온 우리 녀성들, 래양의 품이 있어 조선녀성들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백영III

# 절세의 위인들과 조선의 3.8절

## 3.8국제부녀절

그것은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과 온갖 예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한 전세계여성들의 세계적인 열망의 산물이라고 인류와 역사를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써 하겠다.

은 세계의 여성들이 105번째의 국제부녀절을 나라와 민족의 정치체도와 국제적인 사회환경에 따라 기념하고있다.

3.8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조선여성들의 간결과 기쁨, 격정과 흥분은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여성들도 느낄수 없는 열렬한것이다.

## 8.15가 있어 3.8절이 있다

-해방조국의 첫 기쁨에서-

주제 34(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우리 민족사에 조국해방의 날로 기록되어있다. 아마도 8.15의 참다운 의미를 누구보다 뼈 사무치게 느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여성들이었다.

기근과 질병의 암흑속에서 무지와 동맹, 천대와 멸시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불쌍한 조선여성들이었다. 너자로 태어난 《희》를 속박처럼 감수해야만 했고 온갖 본격적 악습과 폐풍에 얽매어 눈물과 한숨속에서 들어갔다.

3.8국제부녀절이 제정된 1910년 우리 조국은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었다. 당국의 조선여성들에게는 3.8절이 없었다.

나라 잃은 지옥과 불행이 여성들에게만 들춰지지않는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히 유린당해도 누구도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지 못하였다.

3월 8일이란 이 행성의 내인들이 국제부녀절을 즐겼지만 조선의 여성들중에는 그러한 명절이 있다는것조차 아는 여성들이 얼마 없었다. 지어 자기의 이름도 생일도 모르는 여성들이 수다하였다. 3.8절은 조선의 불쌍한 내인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것이었다.

그러한 조선여성들에게 8.15해방은 3.8절을 가져다주었다.

주제 34(1945)년 11월 1일 당부의 창간호에는 이런 표어들이 실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20세기에 남녀의 선거권을 힘있게 살리자!》

《남존녀비의 모순된 사상과 규중녀자란 봉건적사상을 배격하자!》

《봉건적생활양식을 버리고 여성도 국가산업건설에 적극 참가하자!》

《남녀평등의 법률체도를 확립하라!》

《산전후 각 3주간 휴양을 주고 휴양기간의 임금을 지불하라!》

어머수령님께서 《정》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보가 말입니다. 보았습니까? 자, 우리 당보를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 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라고 말씀하시며 펼쳐드신 당보의 창간호, 역사적인 그 신문에 새 조선의 여성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실렸던 그날의 감격을 우리 정녕 잊을수 없다.

언제부터였던가. 울림의 봉선화마냥 속절없이 시들어가던 이 나라 여성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기개와 강인성, 아름다움과 슬기를 펼치던 그 날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도 남녀평등 문제를 한조항으로 새겨넣으시며 여성해방의 길을 열어 나가신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아래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극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던가. 어머니수령님을 따라 항일전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펼쳐나선 그때부터 조선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대지위에 자기의 세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후성기나 가꾸며 팔자를 한탄하던 수많은 여성들이 용약 혁명의 피바다에 뛰어들어 역사적변혁에 대한 사연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품소 창작성인 불후의 고전적명작 《위화》에 담겨져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위화》, 그것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조선혁명가들이 걸어 주신 여성해방의 첫 서사시와도 같았다.

《위화》창작에 대하여 김희경이 추억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다.

《여성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변혁운동에 뛰어들었다는 하나의 혁명이었다. 나는 이 혁명의 주인공들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여성운동의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부녀절을 크게 기념하여야 합니다.》

이 나라 내인들에게 있어서 3.8절은 위대한 은인,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을 떠나 말할수 없는 조선녀성의 명절이다. 백두산위인들께서 찾아주시는 조선의 3.8절은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생의 환희를 주는 명절일뿐아니라 이 나라 여성들의 운명사를 돌이켜보게 하는 역사의 날이다.

대해서 다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느끼었다. 그들을 지지하고 동정하는 과정에 나의 머리속에서는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선 한 내인과 그의 자식들의 형상이 무르익어갔다.》

우리 수령님의 고전적명작 《위화》는 눈물과 수난의 피바다에서 통곡하던 조선 여성들을 혁명의 피바다에로 불러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과 함께 울남이어나가 다시 태어났듯이 참다운 조선여성들은 속명의 울타리를 단호히 박차고 자기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성전에 파강히 떨쳐나섰으며 두 눈을 원수에 가득 채웠는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는 백절불굴의 순서투사들의 대오가 역세게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당장건립을 실현하신 다음 지체없이 진행된사업이 민주여성동맹의 결성이었다. 새 조국건설로 님에 밤을 이어 사업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집무실속판에 해방된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를 각이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기록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새 세대 여성들이여, 과연 알고있는가.

새 조선의 첫 여성잡지체호를 몸소 《조선녀성》이라고 달아주시고 친히 복사까지 써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지난 날 문진출입도 제대로 못하던 여성들이 새 사회건설에 열기해나섰다. 우리 당의 목소리인 당보가 처음으로 발견된 때로부터 한 해동안에만 하여도 여성들과 관련한 기사 수가 무려 100권이 넘게 실리었다고 하니 역사사에 밀려났던 우리 여성들의 운명이

여기에 외국의 한 저명한 인사가 쓴 글이 있다. 《조선의 영웅적수도 평양의 중심부에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미소를 향하여 줄달음쳐나가는 날개달린 딸, 천리마의 동상이 솟아있다.》

이 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하고있으며 남성들과 함께 조선여성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천리마동상에 있는 여성기수는 어느 개별적인물이 아니다. 남자들과 똑같이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안아온 여성들, 사회주의건설의 마나면 행성에서 남자들과 함께 혁명의 기관차를 역세게 몰아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펼친 전제 조선여성들의 상징이다.

역사의 갈피를 먼저보노라면 조국과 역사사이에 이름을 남긴 여성들에게 안겨준 영광이 적지 않다. 16살 처녀의 몸으로 무장을 갖추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앞장서 이끌고 민족이 기마사까지 세워준 여성영웅도 있고 한생을 고집참담한 과학연구에 바쳐 세상을 놀래우는 화학혁신을 발견한 여성과학자도 있으며 인문문화의 보물고에 무시할수 없는 명작을 남기고 역사에 이름을 새긴 녀류소설가도 있다.

조선여성들은 인류사에 자기의 가장 값있는 이름을 하나의 성스러운 정호로 기록하게 새겨넣었다.

여성혁명가! 이것은 우리 조선여성들이 제일 사랑하는 자기의 이름이며 당과 수령이 이 나라의 내인들에게 안겨준 가장 큰 믿음이며 영광이다.

《혁명이 한쪽수레대퀴》라는 유명한 명제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통속적으로 천명하신 우리 수령님, 조선혁명의 첫 기쁨에서 반일부녀회를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는가를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여성들이 자기들의 동맹을 맺고 나라의 수령께 직접 감사의 편지를 올리게 되리라고 그들이 언제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전세계여성들의 국제적명절인 3.8절에는 국경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그 조국의 위대한 은인을 떠나 조선여성들은 결코 3.8절을 혼자하지 않는다.

해방된 조국에서 맞이한 새 조선의 첫 3.8국제부녀절을 우리 진정 잊을수 없다.

3.8국제부녀절이 제정된지 36년만에 조선여성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의 명절을 당당히 기념할수 있게 되었다. 당시 당보에는 《3.8을 기념하면서 조선여성에게 교합》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실렸다.

《8.15의 조선민족해방은 조선녀성의 해방을 가져왔다. 해방된 조선녀성이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는 첫날이다.》

3.8절은 전세계여성이 여성의 사회해방과 인권의 평등자유를 위한 투쟁의 루정이며 여성들의 힘을 한데 모치여 사회국가건설에 참가하기를 명세하고 실천하는 날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첫 3.8절을 맞으며 출판물들을 펴 채웠던 수많은 글들은 그대로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한 이 나라 여성들이 어머니수령님을 우러러 더치는 고마움과 맹세의 분출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때까지 누구도 몰랐다. 새 조선의 첫 3.8국제부녀절을 뜻깊게 기념한 때로부터 몇달후 조선여성들의 운명에서 역사적전환을 가져온 분기점으로 되는 남녀평등헌법안이 발표될줄을.

아직은 인민의 새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 세기적위업도 앞에 있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남녀평등헌법안을 놓고 긴긴 밤을 지새우시었으니 주제 35(1946)년 7월 30일, 조선여성들의 운명에 세 역사적전환을 가져온 그날을 이 땅에 태를 물고 사는 여성이라면 눈에 흠이 들어간들 저절로 잊을수 없다.

진정 어머니수령님은 이 나라 여성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존엄과 행복을 안겨 주신 절세의 은인이시었다.

8.15가 있어 우리 여성들의 자유와 해방의 세 세계, 평명의 세계가 동태되고 조국의 행복한 3.8절도 잊을수 없는 이 나라 여성들이여, 영원히 잊지 말자.

## 값높은 칭호 - 여성혁명가

-민심의 최절정우에서-

무시하여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조선의 어머니 강변선녀사와 수령님께서도 회고하신 백두산장군 김중서동지의 헌성은 여성혁명가의 참된 믿음의 귀감으로 오늘도 우리 나라 여성운동사에 눈부신 해방처럼 빛나고있다.

조선의 여성혁명가들의 첫 세대들이며 이 나라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들인 항일의 녀류사들처럼 여성들모두를 남자들과 동등한 사회적인간으로, 새 조국건설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며 우리 수령님 기술이신 심혈을 무엇으로 다 해 아리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술영화 《어머니는 포수였다》의 원형인 평양의 녀성포수 리수덕에 대하여 기억하고있다.

해방 후 그들 부부 둘 만 나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리수덕녀성의 피눈물나는 과거에 대하여 들으시고 여성들이 모 두다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다면 실로 큰 일을 할수 있다고, 해방된 조선의 여성들은 남자들과 함께 새 조국건설의 투쟁한 어머니들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자신의 존엄으로 된 표창장을 직접 수여해주시었다.

어머수령님 안겨주시는 이런 믿음이 있어 리수덕녀성은 전화의 나날 유격대를 조직하고 수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총을 잡고 원수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기의 존엄을 찾은 이 나라 내인들이었기에 수령님을 품고 적정크리때 시습없이 뛰어넘는 용사 형상에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녀류시대의 영성의 모습을 후대들에게 길이 남길수 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요 《녀성의 노래》를 젊은 추억속에 들으시며 녀성들을 찾이라고 노래만 부를것이 아니라 혁명의 꽃을

피워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거듭 이리시던 어머니수령님, 그녀의 이런 믿을의 손길을 떠받들려 수천수만의 녀성들이 진실의 천리마기수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 기둥을 만들어내셨을수 있었다.

어머수령님의 녀성운동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의 폭풍속에서 우리 녀성들의 삶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이라는 기념비적명작과 더불어 이 나라 녀성들의 이름을 시대의 기록에 아로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수많은 로동당의 참된 딸들이 이 땅위에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올렸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이한 주제 84(1995)년 3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는 우리 녀성들이 그 어떤 천지동파속에서도 당을 따라 주제혁명의 천만리길을 여세계 걸어나갈수 있게 고무추동한 선구적기적이였다.

조선시절의 길에서 녀성군인들을 보실 때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력량탄약이 하고있는 녀성혁명가들이라고, 이런 훌륭한 녀성혁명가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녀성과 학자를 만나시절을 때였다.

그의 정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학분야를 탐구해나가는 녀성과학자로서 한민 명성을 떨쳐보라고 고무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처녀시절에는 꽃을 피우다가도 결혼한 하던 희망도 포루도 다 버리고 주저않는 녀성들이 적지 않은데 절대로 그대서는 안된다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라도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소식을 담담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편지를 올리셨을 때와는 반갑다고,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든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우리 장군님 펼치신 선군시대의 범한 호를속에 군관의 안배들이 시대의 전형으로, 최고사령부 작시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두 배산삼의 평범한 도로관리원이 선군시대의 태생할머니로 불리었으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시고는 어머니들이 모성영웅으로 떠받들리실수 있었다.

천리마의 기수가 되어 질풍같이 내달리던 우리 녀성들의 지위는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저 하늘끝에 닿았다. 우리 공화국의 첫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공을 보아 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었겠나.

오늘 첫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태어난것은 온 나라가 축하해줄 경사이다. 동무들은 모두 자랑스럽고 자랑의 딸, 인민의 장한 딸들이며 꿀풀의 녀성혁명가들이다. ...

고향은 어디이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다정히 물어주시고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귀한 딸들이 조선녀성을 대표하는 녀성추격기비행사로서 자랑 소식이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훌륭한 딸을 둔 부모들에게도 보내주고 온 나라에 크게 소개하자고 하시며 한장한 장 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군인가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이해를, 종장은 남편들과 한전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로 불러주시는 은성, 제 4차 전권어머내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며 고결한 총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진인 시대적분발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이라고 내세워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속에 온 나라 여성들이 시대의 혁명가들로 남자들과 어깨걸고 총풍격전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다.

일찍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저명한 작가는 자기의 인상에서 조선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국가적인 행사장의 맨 앞줄에 녀성들이 서있었다는것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원, 각종 주권기관 대의원으로서 국사를 논하는 마당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으며 영웅으로, 선군시대공로자로, 일군으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3.8국제부녀절이 세상에 태어난지 한 세기가 넘는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여인의 반수를 차지하고있는 녀성들의 운명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조선녀성들은 더욱 높아지고 더욱 아름다워진 자기들의 존엄과 가치를 가슴 벅차게 느끼고있다.

단 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 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던 녀류사들, 이국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아래서는 선군혁명의 폭풍속에서 우리 녀성들의 삶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이라는 기념비적명작과 더불어 이 나라 녀성들의 이름을 시대의 기록에 아로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수많은 로동당의 참된 딸들이 이 땅위에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올렸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이한 주제 84(1995)년 3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는 우리 녀성들이 그 어떤 천지동파속에서도 당을 따라 주제혁명의 천만리길을 여세계 걸어나갈수 있게 고무추동한 선구적기적이였다.

조선시절의 길에서 녀성군인들을 보실 때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력량탄약이 하고있는 녀성혁명가들이라고, 이런 훌륭한 녀성혁명가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녀성과 학자를 만나시절을 때였다.

그의 정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학분야를 탐구해나가는 녀성과학자로서 한민 명성을 떨쳐보라고 고무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처녀시절에는 꽃을 피우다가도 결혼한 하던 희망도 포루도 다 버리고 주저않는 녀성들이 적지 않은데 절대로 그대서는 안된다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라도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소식을 담담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편지를 올리셨을 때와는 반갑다고,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든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우리 장군님 펼치신 선군시대의 범한 호를속에 군관의 안배들이 시대의 전형으로, 최고사령부 작시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두 배산삼의 평범한 도로관리원이 선군시대의 태생할머니로 불리었으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시고는 어머니들이 모성영웅으로 떠받들리실수 있었다.

천리마의 기수가 되어 질풍같이 내달리던 우리 녀성들의 지위는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저 하늘끝에 닿았다. 우리 공화국의 첫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공을 보아 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었겠나.

오늘 첫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태어난것은 온 나라가 축하해줄 경사이다. 동무들은 모두 자랑스럽고 자랑의 딸, 인민의 장한 딸들이며 꿀풀의 녀성혁명가들이다. ...

고향은 어디이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다정히 물어주시고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귀한 딸들이 조선녀성을 대표하는 녀성추격기비행사로서 자랑 소식이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훌륭한 딸을 둔 부모들에게도 보내주고 온 나라에 크게 소개하자고 하시며 한장한 장 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군인가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이해를, 종장은 남편들과 한전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로 불러주시는 은성, 제 4차 전권어머내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며 고결한 총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진인 시대적분발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이라고 내세워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속에 온 나라 여성들이 시대의 혁명가들로 남자들과 어깨걸고 총풍격전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다.

일찍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저명한 작가는 자기의 인상에서 조선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국가적인 행사장의 맨 앞줄에 녀성들이 서있었다는것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원, 각종 주권기관 대의원으로서 국사를 논하는 마당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으며 영웅으로, 선군시대공로자로, 일군으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3.8국제부녀절이 세상에 태어난지 한 세기가 넘는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여인의 반수를 차지하고있는 녀성들의 운명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조선녀성들은 더욱 높아지고 더욱 아름다워진 자기들의 존엄과 가치를 가슴 벅차게 느끼고있다.

단 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 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던 녀류사들, 이국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아래서는 선군혁명의 폭풍속에서 우리 녀성들의 삶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이라는 기념비적명작과 더불어 이 나라 녀성들의 이름을 시대의 기록에 아로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수많은 로동당의 참된 딸들이 이 땅위에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올렸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이한 주제 84(1995)년 3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는 우리 녀성들이 그 어떤 천지동파속에서도 당을 따라 주제혁명의 천만리길을 여세계 걸어나갈수 있게 고무추동한 선구적기적이였다.

조선시절의 길에서 녀성군인들을 보실 때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력량탄약이 하고있는 녀성혁명가들이라고, 이런 훌륭한 녀성혁명가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녀성과 학자를 만나시절을 때였다.

그의 정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학분야를 탐구해나가는 녀성과학자로서 한민 명성을 떨쳐보라고 고무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처녀시절에는 꽃을 피우다가도 결혼한 하던 희망도 포루도 다 버리고 주저않는 녀성들이 적지 않은데 절대로 그대서는 안된다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라도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소식을 담담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편지를 올리셨을 때와는 반갑다고,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든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우리 장군님 펼치신 선군시대의 범한 호를속에 군관의 안배들이 시대의 전형으로, 최고사령부 작시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두 배산삼의 평범한 도로관리원이 선군시대의 태생할머니로 불리었으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시고는 어머니들이 모성영웅으로 떠받들리실수 있었다.

천리마의 기수가 되어 질풍같이 내달리던 우리 녀성들의 지위는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저 하늘끝에 닿았다. 우리 공화국의 첫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공을 보아 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었겠나.

오늘 첫 녀성추격기비행사들이 태어난것은 온 나라가 축하해줄 경사이다. 동무들은 모두 자랑스럽고 자랑의 딸, 인민의 장한 딸들이며 꿀풀의 녀성혁명가들이다. ...

고향은 어디이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다정히 물어주시고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귀한 딸들이 조선녀성을 대표하는 녀성추격기비행사로서 자랑 소식이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훌륭한 딸을 둔 부모들에게도 보내주고 온 나라에 크게 소개하자고 하시며 한장한 장 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군인가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이해를, 종장은 남편들과 한전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로 불러주시는 은성, 제 4차 전권어머내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며 고결한 총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진인 시대적분발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이라고 내세워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속에 온 나라 여성들이 시대의 혁명가들로 남자들과 어깨걸고 총풍격전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다.

일찍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저명한 작가는 자기의 인상에서 조선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국가적인 행사장의 맨 앞줄에 녀성들이 서있었다는것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원, 각종 주권기관 대의원으로서 국사를 논하는 마당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으며 영웅으로, 선군시대공로자로, 일군으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3.8국제부녀절이 세상에 태어난지 한 세기가 넘는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여인의 반수를 차지하고있는 녀성들의 운명문제가

## 어버이와 딸

-사랑의 꽃바다우에서-

인민의 운명, 녀성들의 운명을 책임진 령도자는 정치가이기 전에 위대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녀성들에 대한 사랑을 천문학으로 지니시고 이 땅위에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첫 정치를 펼치신 자애로운 어버이, 그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었다.

뜨거운 추억이 뜻깊은 3월과 더불어 봄 물마당 물결쳐온다.

어머이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자주 추억하며 보곤 하시던 한산의 사진이 있다. 주제 50(1961)년 4월 걸터팡산(당시)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황하에 웃으시며 녀성로동자들에 계시는 뜻을 사진이였다.

피눈물 젖어 머리카락이 모신 딸들 마냥 고이 웃어락에 매달려 행복과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녀성로동자들과 기쁨이 웃음꽃으로 활짝 피어났으리.

기념사진이기 전에 가족사진과도 같다. 우리 수령님과 녀성들의 관계는 이렇듯 우리수령님과 녀성공민들사이의 관계이기 전에 아버지자와 딸의 혈연적관계였다.

사랑을 위해 태어나고 정을 위해 사는것이 녀성인이라면 아마도 우리 조선녀성들처럼 위대한 수령들의 그늘 아래 자애로운 사랑, 따사로운 정을 받아안으며 살아온 녀성들은 이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다.

녀성들을 가졌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주시며 이 문제를 3대기술혁명과업의 하나로 당대회에서까지 토론하도록 하시고 미국놈들에게 속아 나라앞에 괴를 치는 남편들때문에 기를 못 펴고살아가던 녀성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눈물로 가득찬던 그들의 가슴에 햇을 햇빛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같이 위대한 어버이가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었겠나.

연애인가 개천군(당시)의 한 농장을 찾으신 어머이수령님께서서는 그곳에서 일하던 처녀작업반장이 다른 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처녀관리위원장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말 용타고, 처녀의 몸으로 관리위원장직임을 하진던 려지 않았으리라고, 예로부터 우리 부모들은 자기 딸자들을 시집보낼 때 재장감을 마련해주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리도 재장감을 마련하자고,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동무에게 프락트르를 보내주라고 하시며 그의 앞날을 축하해주시었다.

18살의 농장처녀가 말씀올린 빈부투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시고 농장을 대규모담대생산기지로 전면시켜주시는 이야기, 이른 새벽 두부공장을 찾으시고 몸소 그 맛까지 보아주시며 녀성들의 가정일까지 관심해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녀성들은 잊지 못 잊는다.

어머이수령님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세워주시던 녀성들의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또 얼마나 넓고 따사르셨던가.

3.8국제부녀절 100돐에 대한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주제 99(2010)년 2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멀지 않아 3.8국제부녀절 100돐을 맞이한다고 하시면서 3.8국제부녀절을 그 어느때보다 의의깊게 기념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이날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축하는 녀성들뿐아니라 온 나라 인민을 격동시켰다.

나는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며 고상한 사상정신적공포를 지닌 우리 녀성들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며 조선녀성들의 력사적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기회에

은 나라 전체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

누구의 가슴엔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 있지 않았겠나. 구호나무를 구원하기 위해 불속에 뛰어들어 화상을 입은 한 녀강사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여 내세워주시는 사연,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라도 우리 녀성들의 몸단장을 위해 비단옷감과 화장품생산목에도 깊이 마음쓰신 이야기, 지휘관들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녀성들의 바디바탕에 큰 열광을 넘려하시어 약크림을 보내주시는 사연들이 선군조선의 녀성들이 무슨 힘으로 시련의 언덕들을 웃으며 헤쳐올수 있었는가를 음원으로 말하여주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녀성들사이의 정과 정으로 이어진 한식술, 혼연일체의 화폭이 흐르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우리 녀성들의 혈연의 늑대속에 더 아름답게 펼쳐지고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원수님처럼 녀성들을 아끼고 존대하시며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런 열의인, 정의인우 우리는 더는 모른다.

주제 101(2012)년 어머이장군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이 나라 모든 녀성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피눈물로 응어려져있던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시어 아마도 우리 조선녀성들처럼 위대한 수령들의 그늘 아래 자애로운 사랑, 따사로운 정을 받아안으며 살아온 녀성들은 이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다.

녀성들을 가졌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주시며 이 문제를 3대기술혁명과업의 하나로 당대회에서까지 토론하도록 하시고 미국놈들에게 속아 나라앞에 괴를 치는 남편들때문에 기를 못 펴고살아가던 녀성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눈물로 가득찬던 그들의 가슴에 햇을 햇빛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 같이 위대한 어버이가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었겠나.

연애인가 개천군(당시)의 한 농장을 찾으신 어머이수령님께서서는 그곳에서 일하던 처녀작업반장이 다른 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처녀관리위원장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말 용타고, 처녀의 몸으로 관리위원장직임을 하진던 려지 않았으리라고, 예로부터 우리 부모들은 자기 딸자들을 시집보낼 때 재장감을 마련해주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리도 재장감을 마련하자고,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동무에게 프락트르를 보내주라고 하시며 그의 앞날을 축하해주시었다.

18살의 농장처녀가 말씀올린 빈부투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시고 농장을 대규모담대생산기지로 전면시켜주시는 이야기, 이른 새벽 두부공장을 찾으시고 몸소 그 맛까지 보아주시며 녀성들의 가정일까지 관심해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녀성들은 잊지 못 잊는다.

어머이수령님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세워주시던 녀성들의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또 얼마나 넓고 따사르셨던





